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선교헌신주일예배 Mission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온 세상 위하여(찬268/새505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이상태 장로 2부/여홍평 집사 3부/양승화 집사 4부/신영록 집사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최철기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로마서(Rom.) 7:19-25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4:1-19

말씀 Message 1, 2, 3부..... Rev. John Cho **조동현 목사**

구원, 그 이후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9) 선 넘는 선물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2부/예배합니다(완전하신 나의 주) 3부/사랑한다 말하시네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2026년 주제곡)

*축도 BenedictionRev. John Cho **조동현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Go & See!



조동현 목사 / Rev. John Cho

작년에 우간다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는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살아보아서 '기왕이면 안 가본 나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코트야드 우간다 부스에서 권사님들께서 "같이 가실 거죠?" 물어보셨을 때 우물쭈물했는데... 결국 두어달 후 저는 우간다행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벌써 복귀하면 할 리스트들로 머릿속이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공항 밖으로 나오자 펼쳐지는 정겨운 풍경에 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치 38년 전 어린 시절로 시간 여행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치 못한 은혜들이 많았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시골길을 지나 도착한 장애인센터에서 아이들이 춤추며 맞이해 준 것으로 시작해 어딜 가든 찬송과 춤이 있었는데요. 비록 제가 알던 스텝은 아니었지만 (사실 알아도 못 추지만요!) 오랜만에 함께 리듬을 타며 웃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예배 후에 성도님들이 헌물을 가져왔는데, 바나나, 사탕수수, 염소 한 마리, 계란 두 알 등 그 순수한 마음이 계속 남았습니다. 한번은 섬으로 들어가는데 여객선이 고장 나서 통통배를 타고(바가지로 새는 물을 퍼내며!), 또 내려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간 사역 현장 속에도 특별한 기쁨을 주신 여정이었습니다.

평생 의료선교를 다니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마음가짐과 사랑에도 서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료사역만 하셨던 권사님들은 '이번에는 우리도 아동사역을 하자' 준비하셨는데,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마음껏 안아주시며 아이들과 행복해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의 일상과 간증을 통해 그 시골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소명을 헤아려 보았고, 또 세워져 가는 현지 사역자들을 보며 그 땅을 향한 기도제목들이 하나 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물론 여정 속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선교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나로 가득차 있던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과 영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꿈 같았던 시간이 지나 복귀하는 길에서는 이미 달라진 삶의 관점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두 '선교는 가는 자가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올 해의 일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때로는 미지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은혜의 현장으로 밀어 넣을 때도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sign up 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믿습니다. 희년의 해에,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여기치 못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Last year I went on a short-term mission trip to Uganda. I've been to many African countries before. I thought 'I might as well go to a country that I've never been to.' Just then deaconesses with Uganda mission booth asked, "will you go with us?" I hesitated to give my answer at the time. Two months later, I was on an airplane bound for Uganda. In the airplane, my head was being filled with a list of things to do when we return. Upon arrival, as soon as we stepped outside of the airport, seeing such beautiful and familiar scenery, my heart opened wide. It felt like I traveled back in time to my childhood 38 years ago.

There were numerous blessings of grace that was unexpected. Starting with being welcomed by children dancing at the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fter driving through dirt roads, there were praising and dancing wherever we went. They were not familiar steps (even if I knew, I wouldn't be able to dance!), but We laughed and danced to the rhythm. Wherever we went, people brought gift offerings of bananas, sugar canes, a goat, couple of eggs, etc. Their pure hearts remain with me still. We were traveling to an island one day. The ferry broke, so we had to take a small fishingboat (scooping water out of the leaking boat!). After the boat ride, we went to our destination by motorcycles. The place of ministry gave us great joy.

Attitudes and love of Elders and Deaconesses in the team, who traveled for medical missions all their lives, filled us with grace. Deaconesses, who were dedicated to medical missions, prepared for children's ministry this time. I am reminded of the joy as they embraced the children with hearts of mother. Through the local missionaries' daily lives and testimonies, we realized God's heart for sending them to such remote area. Seeing growth of local leaders for the ministry prayers for this land were engraved into my heart.

Of course, the journey isn't easy. But a short-term mission awakens our spiritual self. In a world that has been all about me, God allows us to see the places where He is working, and the souls that He is touching. As the time of the trip passed like a dream, upon return, I feel a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life. That is how we can confess about all missions that 'greatest grace is experienced by those who go.' We may not know all the schedule ahead of us this year, but sometimes unknown steps are necessary. Sometimes, it's necessary to push ourselves into the place of grace. If you sign up by faith, God will open a way. In this jubilee year, more than any other time, I am confident that there will be unexpected special grace for us.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조동현 목사

구원, 그 이후 로마서 7:19-25

1. 나의 신앙생활이 정체기라고 느끼며 자책한 적이 있는지요?

2. 구원 이후에도 다시 찾아오는 문제

(1) 죄의 두가지 유형은 무엇이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나요? (롬 2:12, 롬 7:8, 11)

(2) 율법주의는 어떠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나요? 그것이 어떻게 신앙의 정체기를 초래하나요?

- 타인과의 관계에서:

- 자신과의 관계에서:

-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3. 자기 파괴적인 율법주의에서 구하시는 그리스도

(1) 바울도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서 해결을 찾았나요? (24-25절)

(2)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자기 파괴적인 죄에서 구하셨나요? (롬 8:1-2)

(3)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할 때 우리의 자기 인식이 어떻게 회복되나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나요?

4. 자기 부인을 통해 더 깊은 은혜

(1)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나의 가치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가요? (마 16:24-25)

(2)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 적용찬양: (1, 2부) 예배합니다(완전하신 나의 주) (3부) 사랑한다 말하시네

적용하기



신년인사
1세 목회자

최선을 다해 섬기는 한 해



주성필 목사
(기획/행정)

계속해서 회전하는 물체에는 당기는 힘인 구심력과 밖을 향하는 원심력이 균형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

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흠어져서 선교하는 복음의 능력이 균형 있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써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Come & See 하고, 열방을 향해 흠어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역사를 Go & See 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델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은 이 복음의 역동성으로 인해 어느 해보다 온 교회에 활력이 넘쳐날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베델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오가시는 많은 손님과 성도님들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기획/행정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심껏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이충경 목사
(소망목장/선교)

베델교회 창립 50주년, 이 뜻깊고 거룩한 역사의 자리에 함께하게 됨을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세기 동안 베델을 지켜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망목장을 섬기는 가운데,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에 깊이 다가가겠습니다.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위로와 참된 소망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도님들과 동행하며, 영혼을 돌보는 사명에 충실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에서는 올해 교회 주제인 'Come & See'를 'Go & See'로 확장하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선교 현장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선교사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해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앞에 온전히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박경철 목사
(기쁨목장/찬양/전도)

어느덧 베델의 정원에도 신 번째 새로운 하늘의 기운이 차오릅니다. 반세기를 지나온 우리의 시간은 단순히 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층층이 쌓여온 기적의 나이테 일 것입니다. 'Come & See 50' 이 고백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이 변하고, 눈물이 기쁨이 된 이들이 건네는 뜨거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 지친 이웃들에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지나온 50년의 감사를 이정표 삼아, 이제 우리는 다음 50년이라는 푸른 바다를 향해 닻을 올립니다. 그 찬란한 동행의 길목에서 Come & See 50!를 외칩시다.



박성권 목사
(화평목장/온유목장/섬김)

"와서 여호와와 행적을 불지어다" (시 46:8)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또한 베델교회 50주년이라는 거룩한 이정표 앞에서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모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델의 회년의 해를 위한 표어 'Come & See'는 초대이자 간증입니다. 분주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잠시 멈추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세대를 넘어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를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우리는 새로운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2026년에는 주님의 역사를 와서 보고, 또한 기쁨으로 새해의 은총을 함께 누리도록 VIP들을 초대하며 환영하는 구원의 날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조태현 목사
(사랑목장/셀/울림)

50년이 된 교회의 산역사에 동참하고 있음이 가슴 벅찬 2026년입니다. 송구영신예배와 엘리야특

새를 통해 뜨거운 심령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Come!' 올해도 허락하실 많은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주실 은혜를 바라며, 'See!'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실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더욱 든든해 가는 사랑목장, 공동체를 향한 신실한 일꾼들이 모인 셀 사역팀, 회복과 치유가 있는 영성의 자리 베델동산,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여는 아침영상메시지팀과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화요 큐티 모임 '울림'까지! 모든 사역과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서동민 목사
(충성목장/JOY목장/훈련)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믿음의 순종으로 1976년 첫 발걸음을 내디딘 이래, 어느덧 교회가 50주년을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자의 역사 속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세대와 환경 속에서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그 모든 시간 위에 계셨던 진정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신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50주년은 저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진 충성목장, 말씀과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제자훈련, 그리고 매월 은혜의 시작을 열어주는 다음 세대를 향한 OICOS까지, 이 모든 소중한 사역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은 설렘으로 뛰고, 감사로 가득 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그 자리로 저 또한 주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지난 50년을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걸음도 동일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대합니다. 끝까지 충성!



조동현 목사

(믿음목장/새가족/QTin)

베델의 50년 희년(Jubilee)을 맞이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기대를 품게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공동체

를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만남,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이상을 넘는 기쁨과 회복, 그리고 성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새가족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가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또한 QTin 사역이 계속해서 온 세대가 한 말씀으로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도록 계속해서 섬기겠습니다.



배홍수 목사

(은혜목장/예배/BCA)

베델에서의 첫 일 년 동안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새로운 목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은혜' 목장과

'예배', 그리고 'BCA'를 맡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다음 세대를 섬기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데,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지난 반세

기 동안 흘러온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차고 넘치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본을 따라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로 섬기고,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가장 기뻐하는 참된 목자가 되길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올 한 해도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Come & See 50!



송용주 목사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여전히 주님 한 분'을 외치며 시작한 한 해가 가고, 이제 주님 한 분만 붙들고 걸어온 베델의 50년 발자취를 '와서 보라!' 간증하는 뜻깊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베델의 50년 걸음마다 자욱마다 오직 주의 은혜만 보여지길 소원합니다. 사람의 열심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연약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이 아닌 증언으로, 업적이 아닌 감사로 드러내며, 그 가슴 벅찬 감격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복된 한 해 되길 소원합니다.



강슬로몬 목사

(예삼채플 총괄)

Come & See 50! "너희는 오십 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레 25:10). 우리 베델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찬양합니다. 성경에서 오십 번째 해는 '거룩함'과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禧年)입니다. 묶였던 자들이 풀려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자기 기업으로 돌아오는 화평의 해입니다. 소원하기로는, 만일 우리 가운데 빼앗겼던 영역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재방문'을 뜨겁게 경험하며 새롭게 부흥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현호승 목사

(교회학교 총괄)

어느새 2025년을 지나 2026년을 베델 가족과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베델교회에서 사역한 지도

어느덧 6년이 되었고,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 부흥의 힘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도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교육부와 BYM 중등부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2026년 교육부는 'Vibrant Christianity'라는 주제 아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하며, 올 한 해도 베델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 QARA

겨울 수련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이번 BYM 중등부 QARA 겨울 수련회는 'Kainos(새로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산속에서 휴대폰과 게임을 내려놓고 2박 3일 동안 기도와 말씀, 찬양과 교제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아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특히 믿음 공동체의 중요성이 깊이 강조되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화합을 넘어 서로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사랑

이며, 진실한 권면까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두세 명씩 모여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 서로를 위해 땀 흘리며 적은 encouragement note 속에서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큐티부터 단체 게임과 액티비티, 밤늦게까지 이어진 Overflow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까지, 3일 내내 온 마음과 목소리로 드러낸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Kainos라는 주제처럼 재창조된 삶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 세

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지애 집사



선교
2026 선교 비전

복음의 문을 여는 방식

누군가 우리 베델교회 선교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2022년에 발표한 베델교회 선교 사명 선언문을 보셔야 합니다. 조지아에서 선교대회를 하며 파송/협력 선교사들과 저희 교회가 함께 모여 베델 선교의 방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다섯 가지입니다.

- ①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교회의 본질이다
- ② 복음으로 전인적 구원을 이루고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총체적 선교를 실천하는 것이다
- ③ 10/40 Window와 이슬람권을 향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 ④ BAM을 통한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음 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양육하는 것이다
- ⑤ 북한/난민/의료 등 특수 사역을 협력하는 것이다.

총체적 선교란 복음 전도라는 선교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를 모두 수용한 균형 잡힌 개념입니다. 베델교회는 총체적 선교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선교 전략으로서의 BAM(Business as Mission)입니다. 모든 성도가 비즈니스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며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가 제한된 세상 속에 들어가 복음의 문을 여는 방식입니다. BAM Connect는 BAM 전략의 후속 조치로, 선교지의 필요와 성도들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며 베델교회 선교 전략의 핵심입니다.

둘째, 베델교회는 매년 수많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며 선교지의 복음 전도 사역에 협력합니다. 특히 베델교회만의 특별한 선교 콘텐츠로 안경, 의료, 한방, VBS, K-문화, K-푸드, 사진, 예배 등으로 선교지에서 복음의 문을 엽니다.

셋째, HisWill 프로젝트는 단기 선교로 만난 선교 대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결하여 교제와 교육, 특별히 영어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베델 선교는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 속에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2026년은 베델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2026년, 베델교회는 선교대회를 엽니다.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과 파송/협력 선교사들을 초대하여 선교대회를 열고 연대함으로써 선교의 시너지를 최고로 끌어올리려 합니다. 2026년 베델교회 선교를 위해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후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충경 목사

예배
엘리아 특별새벽기도회

엘새를 통해 바뀐 내 삶의 사칙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다'라는 사칙연산은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제 삶을 움직이는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부산 이모할머니 댁으로 이사하며 시작된 더부살이는 고등학교까지 이어졌고, 어머니는 그 댁에서 가사일을 도맡아 하시면서 제 학업을 뒷바라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싶다는 마음으로 '성공'을 위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몇 배의 노력과 열정으로(x),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실패해도 흔들리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이 첫돌을 맞이하던 해에 친정어머니께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중 감염이 되셔서, 한 달 사이에 다섯 번이나 반복된 수술로 고생하시다 '수술 후 패혈증' 의료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라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

해 하나님 정말 계신지에 대한 의문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고, 제게는 너무나 큰 쓴뿌리가 되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했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엘새에서 선포된 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신앙의 참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했었고, 문제가 길어질수록 제 마음은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엘새 말씀을 통해 제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염려'였다는 것과 고난을 피해 가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신앙으로 초대받았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폭풍과 예상치 못한 상실 앞에서 'Why me

again?'이라고 묻던 제가, 이번 엘새 기간 동안 들었던 말씀과 개인적 묵상과 기도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면 'Why not me?'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성공과 안정이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믿음, 감사, 순종, 사랑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과 감사는 더하고, 두려움과 염려는 빼며, 순종은 곱하고, 사랑은 나누는 삶이 제 삶의 새로운 사칙연산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갑선 권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운유/성경: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상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상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상채플: 이형석 목사
- 예상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한어중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파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상 위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장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국제 전도폭발 임상훈련 동역자 모집

미국 전역에서 모인 30여 명의 훈련생들이 전도폭발 교사로 세워지는 제82차 국제 전도폭발 임상훈련을 위해 기도로 함께해 주실 후원자와 복음을 들으실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 ① 기도로 동역해 주실 기도후원자 총 60명
 - 훈련생 1명당 기도후원자 2명
 - 훈련 전부터 훈련 종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전담 기도
- ② 복음의 핵심 내용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 줄 성도님 45명

QR코드로 등록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이 사역은 기도의 동역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 훈련 기간: 3월 23일(월)-3월 26일(목)
- ▶ 장소: 베델교회
- ▶ 문의: 황리나 권사 (949)842-3370



1
훈련생 1명 전담기도

2
훈련 전 - 훈련 중 - 훈련 종료까지 기도

3
영적 보호, 담대함, 전도 현장을 위해 기도

영적보호 담대함 전도현장

예배 봉사자

주일에배 대표기도(2월)	2/8: ①부-이종교 ②부-이국선 ③부-김광식 ④부-이유진
	2/15: ①부-임동익 ②부-이선갑 ③부-박성규 ④부-김승진
	2/22: ①부-이창열 ②부-조관희 ③부-박준경 ④부-양경인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2월)	2/7: 김대웅	2/14: 천승현	2/21: 김영민	2/28: 김영현
강단꽃(2월)	2/1: 김윤숙, 안상선	2/8: 윤성자, 이태형	2/15: 이경희	2/22: 노성애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태원(내과), 간호사-김선미 다음주 | 의사-장원호(족부과), 간호사-황미례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미션의 날** 오늘 주일(1일)은 '미션의 날'로 지킵니다. 예배 시간에 단기 선교, 선교 헌금 및 선교 기도 작성의 시간을 갖게 되며, 아울러 2026년에 펼쳐질 베델의 단기 선교를 본당 앞 부스에서 선교지별로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황세현 장로 (949)648-1907

◆ **OICOS 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은혜목장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2월 10일(화)~13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 OICOS 예배 특송: 은혜목장(배훈수 목사 담당) OICOS 예배 일시/장소: 2월 14일(토) 오전 6시, 본당

◆ **수요저녁예배**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 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문의: 2월 4일(수) 저녁 7시 30분, 조광중 집사 (949)706-416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선교사 파송예배** 50주년을 맞이한 베델교회가 선교 비전을 따라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오세영/오미숙, 서형렬/서정희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러지는 선교사 파송 헌금은 선교사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 쓰입니다.
일시/장소: 2월 7일(토) 오전 6시 헵시바 예배 시, 본당

◆ **셀 목사 첫 정기모임과 셀 개강 안내** 올 한 해도 힘차게 달려갈 셀 목사 정기모임이 시작됩니다. 셀 목사님들을 격려하는 따뜻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셀 개강은 2월 15일(주일)입니다.
일시/장소/문의: 2월 7일(토) 헵시바 예배 후, 체육관,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셀사역 1,1,1 캠페인** '①한 장로님이 ①한 가정을 ①일 년 동안!' 신청해 주신 장로님 가정에 셀에 속해 있지 않은 한 가정을 연결해 드리고, 1년 동안 작은 셀모임을 하는 캠페인입니다. 베델의 자랑스러운 장로님들을 초대합니다!
접수 기간/장소/문의: 2월 8일(주일)까지, 본당 앞 부스,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베델 BAM 모집** 봄학기 훈련 1-3단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방법: 2월 1일(주일)-15일(주일), 본당 앞 부스나 QR 코드 훈련 일정: 2월 19일(목)-6월 4일(목) 총 13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문의: 장지봉 집사 (949)899-7334



◆ **교인 총회** 2월 14일(토) 오전 7시 30분 토요 헵시바 예배 후, 본당에서 교인 총회로 모입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입교) 등록 교인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베델제자훈련 수료식** 양육반, 전도폭발, BAM 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 기념 촬영이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장소: 2월 8일(주일) 3부 예배 시, 본당

◆ **제7기 베델기도학교** 체계적인 기도훈련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기도의 용사로 세움받기 원하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교육 기간: 2월 둘째주-5월 둘째주 (총14주)
접수 마감/등록비: 2월 8일(주일), 20불 (교재 포함)
교육 내용: 2월 12일(목) 개강모임, 조별 기도모임과 책 나눔(12주), 기도 세미나(2회)
등록비/방법: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폼 작성, 혹은 본당 앞 기도팀 부스에서 신청
문의: 이봉운 집사 (714)788-1235, prayer.school@bkc.org



◆ **새 주차증 발급 안내** 본당 주차장은 발급받으신 예배 시간(1부, 2부, 3부)에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는 바로 출차해 주시거나 차량을 비전파킹랏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문의: 주차 사무실, 김주홍 집사 (213)880-1022

◆ **BYM 중등부(Qara) 찬양팀 인턴십** 6-8학년 대상으로 총 6회 과정이며, 고난주간 동안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QR 코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현호승(Daniel) 목사 (949)677-4911



◆ **초등부(4-5학년) PTA 모임** 새로 부임한 교역자 및 팀장 소개와 올 한 해 초등부 사역의 방향과 계획, 그리고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2월 8일(주일) 오후 12시 30분-1시 30분, 체육관

◆ **QTin 2월호 판매** QTin 교재를 매 주일 실내 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를 날마다 말씀으로 더 채워가는 온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기도해 주세요** 예살 들로스 리더 수양회가 2월 6일(금)-8일(주일)까지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창에 권사님(김정수 집사의 모친, 이운선 집사의 시모)께서 1월 27일(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이종순 권사님(차은하 권사의 모친, 차승호 집사의 장모)께서 1월 29일(목)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ANA(어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가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 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alvation, and What Comes After

Romans 7:19–25

1. Have you ever felt like your faith has hit a plateau and ended up blaming yourself?

2. Problems That Resurface Even After Salvation

- 1) What are the two types of sin, and which one feels harder for you to deal with? (Rom 2:12, Rom 7:8, 11)
- 2) What kind of destructive results does legalism bring? How does it lead to a stagnation in your faith?
 - a. In your relationship with others:
 - b. In your relationship with yourself:
 - c. In your relationship with God:

3. Christ Who Saves Us from Self-Destructive Legalism

- 1) Paul also struggled with inner conflict. Where did he find the solution? (v. 24-25)
- 2) How did Christ save us from self-destructive sin? (Rom 8:1-2)
- 3) When we affirm the grace of the cross, how is our self-understanding restored? And how does that lead to the restoration of our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with God?

4. Deeper Grace Through Self-Denial

- 1) What does it mean to deny yourself? Does it mean denying your value or your very existence? (Matt 16:24-25)
- 2) How can we apply this to our lives to restore the grace of faith?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